
 산업통상자원부		<h1>보도자료</h1>			
http://www.motie.go.kr					
<p>2019년 10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7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</p>					
배포일시	2019. 10. 7.(월)		담당부서	중견기업혁신과	
담당과장	김태우 과장(044-203-4370)		담당자	이성민 사무관(044-203-4375)	

2단계 글로벌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

- 월드클래스 300 후속사업 예타 통과, 10년간 4,635억원 중견기업 지원 -

□ 신기술 개발역량과 독자적인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‘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(舊 월드클래스 300)’가 다시 추진된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성윤모)는 10.8(화) 월드클래스 300* 후속사업인 ‘월드클래스+ 사업’이 예비타당성 조사**를 통과함에 따라,

*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'11~'18년 동안 중견·중소기업 313개社를 지원하였으나 '18년 일몰로 신규 지원이 중단, 후속사업으로 월드클래스+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

**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예산(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)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과학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

○ 향후 10년('20~'29)년간 유망 중견기업 150개社를 선정, 新산업분야* 등 기술개발에 4,635억원(총사업비 9,135억원)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* 중견기업 적합분야와 중견기업 R&D 수요를 종합하여 도출한 16대 신산업 분야(미래차, 바이오헬스, 반도체, IoT, 에너지신산업, 드론, ICT융합신산업 등)를 집중 지원할 계획

< 월드클래스+ 사업 특징 >

□ ‘월드클래스+ 사업’은 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기업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바텀-업 R&D 지원방식의 ‘월드클래스 300’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,

○ 지난 10년간의 사업여건,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대상, 사업구조, 지원체계 등 세부사항들을 일부 보완·변경하였다.

① 지원대상을 중소·중견기업(월드클래스 300)에서 중견기업(월드클래스+)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 중심사업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였다.

- 이를 통해, 정부의 기업지원 R&D사업을 '글로벌강소기업(중소기업) → 월드클래스+(중견·후보중견기업)'사업으로 명확히 구분, 중복성을 없애고 보다 체계적인 기업성장 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.

②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내수시장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을 발굴하여, 16대 신산업분야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기획되었다.

- 이는 선행사업(월드클래스 300)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들을 직접 선정, 기술개발을 지원한 것에 비해 기술개발의 전략성과 정부의 육성의지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.

* 지원대상 : (월드클래스 300) 월드클래스 수준 기업 (3년 평균 R&D집약도 2% 이상 or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15% 이상) → (월드클래스+)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(3년 평균 R&D집약도 1% 이상)

③ 선행사업에서 호평을 받은 월드챔프 사업 등 非R&D 지원시책도 보다 강화하여, 여러 정부 부처, 유관기관의 지원시책과 상호지원*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, 지속 발굴·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* IP컨설팅, 해외마케팅, 금융, 인력 등 분야 14개 지원시책 지원·우대가점 조건 적용

- 이를 위해,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)들이 참여하는 '월드클래스+ 서포터즈'를 구성·운영할 계획이다.

< '월드클래스300'-'월드클래스+' 사업 구조 변화 >

구 분		월드클래스300 사업 (선행사업)	월드클래스+ 사업 (후속사업)
기업구분		■ 중소/중견기업 300개社	■ 중견·중견후보기업 150개社
매출기준		■ 400억원~1조원	■ 700억원~1조원
수출비중		■ 20% 이상	■ 50% 미만
혁신성/성장성		■ 3년 평균 R&D집약도 2% 이상 or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15% 이상	■ 3년 평균 R&D집약도 1% 이상
지원내용	R&D	■ 최대 5년, 평균 28억	■ 최대 4년 평균 30억
	非R&D	■ 기업 지원사업 운영 기관/부처와 개별 협의를 거쳐 상호우대	■ 중견기업 지원사업 운영 기관/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사업간 내용 조율, 신규 지원시책 발굴 추진

④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 기업 지원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.

- 산업부는 앞으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과제 선정비중을 40%*까지 끌어올려 대외 불확실성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* 선행사업(월드클래스300) 과제 286개 중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과제는 81개(28.3%)

□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“과거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기술개발, 해외마케팅 등 기업성장 지원정책으로서 호평을 받았으나, ‘18년 일몰되어 역량있는 중견기업 발굴·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”고 말하고,

- “과기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후속사업을 마련한 만큼, 향후 유망한 중견(후보)기업을 제대로 발굴,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한편,
- 중견기업이 우수한 기술역량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상생협력 주체로서 다수 포진*해 있는 만큼, 앞으로 월드클래스+ 사업을 통해 소재·부품·장비 육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* 제조업 중견기업 1,038개社 중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중견기업은 602개社

【붙임】 월드클래스+: 글로벌챔프육성사업 개요 1부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성민 사무관(☎044-203-43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 개요

- ☐ (추진배경) '월드클래스300 사업' 일몰('19년)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필요
- ☐ (기간/예산) '20~'32년(13년) / 9,135억원(政 4,635억원, 民 4,500억원)*
- ☐ (선정) 대기업 의존성이 높으나 기술개발 잠재력을 갖춘* 중견기업·후보 중견기업(매출 700억 이상)의 성장전략을 평가, 150개社 선정, R&D지원
 - * 선정기준 : 수출 비중 50% 미만 & 3년 평균 R&D집약도 1% 이상
- ☐ (지원) 4년간 기업당 30억원 지원(해외마케팅·금융·컨설팅 등 연계)

< 연도별 지원 계획(20년 예산 반영시) >

년도	'20	'21	'22	'23	'24	'25	'26	'27	'28	'29	'30	'31	'32	계
기업선정	16	16	16	15	15	15	15	14	14	14	-	-	-	150
국비	124	247	371	487	479	471	464	456	448	440	325	216	108	4,635

2. 사업 특징

- ① (산업정책)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(미래차, 바이오헬스, 반도체, IoT, 에너지 신산업) 지원비중 확대 : (월드클래스300) 26% → (월드클래스+) 50%
- ② (기업간 협력 확대) 중견-벤처·중소기업 협업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: (월드클래스300) 5% → (월드클래스+) 40%
- ③ (종합지원) R&D, 수출, 금융, 지재권, 인력 등 종합 지원체계* 구축
 - * KIAT(간사), 산업은행, KOTRA, 지식재산보호전략원, 중견련 등 참여
- ④ (소재·부품·장비) 일본 수출규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선정비중 확대 : (월드클래스300) 28% → (월드클래스+) 40%

< 월드클래스300 - 월드클래스+ 사업 비교 >

구분		월드클래스300	월드클래스+	선행사업과의 차별성
지원 분야		기업 자체 선정	新산업분야 집중 지원	산업정책 고려
지원	기업 수	119개社	150개社	선정기업 수를 늘리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중견기업 지원 강화
규모	총 정부지원	3,300억원	4,635억원	
(중견)	업체당지원	27.7억원	30억원	
지원 방식		R&D 위주 지원	IP·수출·금융 종합지원	지원체계 구축
참여 방식		개별기업 참여	컨소시엄 참여 유도	컨소시엄에 가점 부여